

### 3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주요 개선사항

#### “답은 현장에”

지난 2~3월 분야별·사업별 현장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사업구조를 진단하고 개선방안 등을 현장 전문가,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현장 업무보고에서 제안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 되기  
위해 사업 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새롭게 설정된 사업 구조와 운영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업 구조는 단순화하면서도 수용의 폭은 확대

현장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 사업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어떤 사업에 신청해야 할지 고민
- 현재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파악하기 어려움
- 실연자 대상 지원사업이 확대되길 제안
- 작품 생애주기 관점에서 장기간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 마련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에 더 많은 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대 제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안을 찾았습니다

(문제점 인식) 2023년 기준, 공모사업 44개, 장르별 세분화된 나열식 구조로 매우 복잡

→ (17개 사업으로 단순화) “누구나 쉽게 파악이 가능한 구조”

(문제점 인식) 정책적 목적이 분명한 사업임에도 기획 없이 기존 공모사업과 동일하게 운영

→ (사업특성에 따른 재구조화) “창작 지원과 정책적 건인이 필요한 사업을 구분하여 재구조화”

(문제점 인식) 사업목적에 따른 지나친 세분화로 인해 지원 대상과 사업의 폭이 좁음

→ (예술현장의 누구나 참여) “지원사업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상과 사업 확대”

○ 17개 사업으로 단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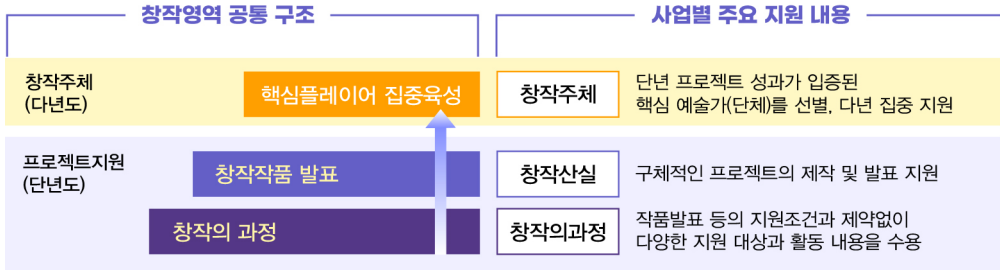
- 사업 목적과 내용, 지원 대상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여 일원화  
분야별 창작의과정 8개 사업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 등 8개  
→ 창작의과정  
예술인력지원 3개 사업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공연예술전문인력, 무대기술인턴십  
→ 현장예술인력지원  
청년예술가 2개 사업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 청년예술가도약지원
- 사업이 아닌 플레이어 지원으로 관점을 전환하여 나열식 사업을 결합  
창작지원사업의 장르별 주요 창작자/ 매개/ 공간/ 플랫폼 지원사업은  
“창작주체” 지원으로 결합 : “11개 사업 → 4개 사업”

○ 사업 특성에 따른 재구조화

- 지원 목적에 따라 영역을 대분류, 영역별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 모델 구축
- (창작영역) 세분화된 사업 경계를 허물고, 지원 목적과 대상에 따라 재편하여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및 장르 공통 구조 마련
- (정책영역) 정책적 목적이 분명하여 별도의 집중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설정, 영역별 특성에 맞는 고유의 사업 모델 구축

창작영역	정책영역
장르별 세분화된 복잡 나열식 사업구조를 지원대상에 따라 단순화 / 단계별 지원구조로 전환	별도의 집중 육성이 필요한 분야는 영역별 특성에 맞는 고유 사업 모델 구축
창작프로젝트(과정·발표) / 창작주체 창작영역 9개 사업	국제교류 / 일자리 / 청년예술가 / 향유 정책영역 8개 사업
↓	↓
예술의 창의성 제고	예술의 다양성 증진

－ (창작영역 공통구조) 창작의과정·창작산실·창작주체



－ (정책영역 구조) 국제교류 / 일자리 / 청년예술가 / 향유

국제교류	일자리	청년예술가	향유
국제교류 형성과 활성화의 주요 요소인 네트워크에 주목	수요자 중심 지원사업 단체 업무 편의성 제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청년예술가 대상 사업 체계화	특정 관객을 위한 맞춤형 예술지원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	현장예술인력지원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신나는예술여행 어린이청소년예술지원

○ 예술 현장의 누구나 참여

- － (창작의과정) 프로젝트 준비 및 과정 단계에 대한 지원인 “창작의과정”사업을 개방형 예술지원 형태로 확장하여 작품 발표 등의 지원조건 제약 없이 다양한 지원 대상과 활동 내용을 수용
- － (창작주체) 기존 세분된 구조에서는 사업 목적에 따른 사업별 지원 신청 대상이 한정 되었으나, “창작주체”지원에서는 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역량이 입증된 누구나 신청 가능

○ 2023년도 공모사업 대비 2024년도 공모사업 비교

2023년도 공모사업		2024년도 공모사업		
분야	사업(44개)	분야	사업(17개)	구분
문학	창작의과정 #문학	모든 장르	[준비] 창작의과정	창작 영역
시각예술	창작의과정 #시각예술			
공연예술	창작의과정 #공연예술_사전제작			
	창작의과정 #공연예술_사전연구			
공공예술	창작의과정 #공공예술			
다원예술	창작의과정 #다원예술			
어린이	창작의과정 #어린이청소년			
예술기술	창작의과정 #예술과기술			
문학	(문학창작산실) 아르고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문학	[발표] 창작산실	
	(문학창작산실) 아르고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시각예술	(시각예술창작산실) 우수전시지원	시각 예술		
	(시각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			
	(시각예술창작산실) 중견작가프로모션기획지원			
공연예술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공연 예술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예술기술	예술과기술 유형 ① 아이디어 기획구현 지원	다원 예술		
	예술과기술 유형 ② 기술융합 창제작 지원			
다원예술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	문학		[핵심 플레이어] 창작주체
문학	(문학창작산실) 문예지발간지원	시각 예술		
	(문학창작산실)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시각예술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	공연 예술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사립미술관)			
공연예술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_음악, 전통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예술기술	예술과기술 유형 ③ 우수작품 후속지원	다원 예술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_민간소공연장지원			
다원예술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	국제 교류	국제 예술네트워크지원	
국제교류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일자리	국제예술공동기금	일자리	현장예술인력지원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청년 예술가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	청년 예술가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정책 영역
	예비예술인지원 1) 예술대학의예비예술인현장연계			
	예비예술인지원 2) 예술단체의예비예술인발굴육성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향유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향유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신나는예술여행		신나는예술여행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_창작의발표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_창작협력단				
공공예술	아르고공공예술사업(지속활용형)	공공예술	아르고공공예술사업(자율실행형) 아르고공공예술사업(주제심화형)	
	아르고공공예술사업(자율실행형)			
	아르고공공예술사업(주제심화형)			

## □ 예술현장 자율성 · 지속성 제고를 위한 사업 운영 방식 개선

### 현장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 지속 가능한 예술은 자생력이 중요
- 연간 단위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인데 긴 호흡으로 창작을 지원받아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 다년지원 사업의 확대 및 사업수행의 시기적 유연성 필요
- 사업의 결과물을 오픈 소스로 공개, 한국 예술 현장의 성과로 자원화, 자산화 필요
- 10년 이상 지속되는 민간 공연예술제는 다년간 지원이 필요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에 더 많은 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대 제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안을 찾았습니다

(문제점 인식) 기존 소액다건, 단년도 프로젝트 중심 지원 구조 개선 필요

➔ (지원 사업 관점의 전환) “사업이 아닌 플레이어에 주목”, “중장기적 관점의 지원사업”

(문제점 인식) 프로젝트 종료 후 사양되는 결과물

➔ (지원 사업의 성과 확산) “지원 효과는 높이고, 성과는 모두의 자산으로 환원”

### ○ 지원 사업 관점의 전환 :

#### 프로젝트 지원에서 주체 지원으로, 단년도 지원에서 중장기 지원으로

-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 및 예술 현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3년간 자율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창작주체” 사업 신설
- 현장에서 긴 시간 창작 역량을 축적해온 “예술가, 단체, 매개, 플랫폼 등 플레이어” 그 자체를 지원

프로젝트 지원	예술가, 단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 기획서 중심의 심의, 단년 지원
창작주체 지원	예술가, 단체 등 예술생태계 내 활동하는 “핵심 플레이어”를 지원, 활동 이력 중심의 심의, 다년 지원

- (공모주기) 현장의 기회 확대 및 신규 주체 발굴을 위해 공모 주기 개선  
(기존) 중장기 사업은 3년마다 공모 → (개선) 매년 공모를 시행

### ○ 지원 사업의 성과 확산 :

#### 지원 효과는 높이고 성과는 예술 현장 모두의 자산으로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외 예술가에게 필요한 네트워킹, 역량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지원사업 성과의 순환) 지원선정자들의 활동내용을 예술현장에 공유, 예술현장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 보조사업 운영 방침 강화로 지원사업 책임성·신뢰성 제고

예술현장과 우리는 상호 신뢰성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심의위원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 미정산·부정수급 원천 차단
- 보조사업 책임성 제고 및 지원 기회 확대 필요
- 지원사업 참여자의 저작권 보호 제도 마련

### ○ 보조사업 선정의 공정성 강화

- 심의위원 후보단 전면 재정비를 통한 심의위원 전문성 제고 :  
심의위원 자격기준 강화 및 전원 신규 모집·선정으로 후보단 재구성
- 심의위원의 책임성 강화 및 현장성 확보를 위한 후보단 3년 임기제 도입
- 불공정·불성실 심의위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결과 반영으로 아웃제 도입

### ○ 보조사업 참여자의 책임성 강화

- (저작권 보호) 원작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사업은 부적격 처리
- (의무불성실 제재)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  
사안에 따라 지원신청 부적격자로 지원 선정 원천 차단 및 지원심의 감점 적용

지원신청 및 선정 차단 (2024년 지원신청부터)	(미정산) 지원신청 마감일까지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자
	(미반납) 부정수급·미정산 등으로 위원회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심의감점 (2025년 지원심의를부터)	(부정수급 수행배제)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정보공시 미이행·불성실공시) 정보공시 미이행·불성실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장기 정산 지연) 정해진 기한(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정산을 완료한 보조사업자
	(부정수급 환수 명령)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 명령을 받은 후 반납한 보조사업자

- (다중선정 제한)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책임성 강화 및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한 다중 선정 제한

다중 선정 제한	(3건까지) 동일인(단체)에 대한 선정은 3건까지만 가능 4건 이상 선정 시 3건의 사업을 지원신청자가 선택하여 최종 선정
	(창작) 창작영역 사업 중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 사업은 동시 선정 불가. 동시 선정 시 지원신청자가 선택하여 최종 선정 * 창작의과정·창작산실 / 창작주체 사업 중 선택
	(청년예술가)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은 청년예술인 특화 지원 사업으로,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른 사업과 동시에 선정 불가

- (평가·모니터링 및 환류 강화) 보조사업 의무 이행 여부는 전수 서면 평가 실시,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심의 시 반영